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신
앙고백 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 도 신 경 다 갈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89장(통 308장) 다 갈 이

- 1절) 넓은들에 익은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 하도다
- 2절) 추수할것 많은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는 일꾼들을 주어 보내 주소서
- 3절) 먼동틀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추수 하게 하소서
- 4절) 거둬들인 모든알곡 천국 창고 들인후 주가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 하겠네
-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교 독 문 106번 (감사절②) 다 갈 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기 도 가 족 대 표

사랑의 하나님! 금년에도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알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도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연약한 가족들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힘든 관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30편 11~12절 말 은 이

-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 [12]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설 교 말 씀 감사하는 성도 말 은 이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중추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모든 뜻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하루는 음식 맛이 너무나 좋아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솜씨가 좋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 “아닙니다. 오늘 가게 주인이 참으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어서 음식이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건을 팔았는가?” “저는 장사꾼이에요. 농사를 지은 것을 가져다가 파는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임금님께서 농사짓는 분을 데려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는가?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었고요. 김 조금 메었고요, 저는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단비 주시고, 적당한 기후 주시고 내게 건강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주셔서 거둔 것입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감사할 것을 신구약 성경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감사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의 감사는 다 있어서,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축복 받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영 죽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샘이요 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이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어디 가서도 이 하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존 밀러는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 30:11-12절에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 송 찬송 588장(통 307장) 다 갈 이

- 1절) 공중나는 새를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안에 들인것이 없어도
세상주관하는 주님 새를먹여주시니 너희 먹을것을 위해 근심할것 무어나
- 2절) 들의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속에 던질풀도 귀히입히시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먹고 마시며 무슨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것 아신다
- 4절) 너희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주 기 도 문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
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추석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2016년 성묘예배순서

- 예식사(인도자) :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씨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신앙고백(다같이)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 찬 송(다같이) :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성경봉독 : 히브리서 11장 13-16절
- 권면과 위로

고향

추석 연휴가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예전엔 수많
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얻은 귀성 열차표 한 장을 들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향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타향에 오래 살아도 그곳은 어디까지나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은 오직 한 곳, 자기의 뿌리가 있는 그곳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참으로 많은 민족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총리까지 지낸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 타향에서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늘 고향
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나를 헛 사람 애브론의 발에 있는 굴, 내 선조들 옆에 묻어다오.”(창49:29)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
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창50:24~25)고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거든 반드시 돌아가고, 그 때 내 유골도 가
지고 고향으로 가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알고, 언제나 내가 가야할 분향 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위엿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향을 찾는 이 계절에 우리가 가야할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엿 것
이 아니라 위엿 것에 소망을 두고, 위에 보화를 쌓을 줄 아는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 찬 송(다같이) : 491장
- 주기도문(다같이)

2016년 추석감사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교회

HAPPY PRESBYTERIAN CHURCH OF DAEJEON

담임목사 신 승 현

Senior pastor SHIN, SEUNGHEUN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290(관저동) 042-542-1004